

건강백서 ⑨

입 고 많은 단어를 광학하게 되기 때문이다. 민간요법으로 '오리 피를 먹거나 특히 혀(舌)를 먹으면 특효'라는 검증되지 않은 속설이 있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연보호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는 물오리의 사냥도 문제지만 고가로 수탈당하는 환자들의 처지도 딱하기만 하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물오리의 청혈효과가 뇌혈관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며 결과적으로 언어장애를 도와준다면 이론상으로는 하자



충치나 염증 소화불량 입냄새 主因 '오리피 언어장애 특효說' 검증 안돼

구취(口臭)는 치아, 잇몸(치주)에 충치나 염증이 있을 때나 위장에 질환 특히 소화불량 사에도 나타. 충치증 또는 폐농양 등 분비물에 의한 악취일 수도 있어 구별이 필요하다. 중증의 주요증상 가운데 언어장애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뇌의 언어중추가 뇌알혈이나 뇌혈전에 의한 저해로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장애가 되는 열병(血熱=피로)이 제거되거나 손상조직이 회복되어야 좋아질 수 있는데 약간 회복된 후에도 상당기간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 완전에 가깝게 회복된다.

언어는 일종의 습관이므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둔해지

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발상자체가 '오리는 소리를 강하게 지르는 동물'이므로 피나 특히 혀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지극히 비과학적이며 장기요법의 이론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리고기의 청혈효과를 기대하고 장복(長服)하면 어느정도 유익할 수는 있겠지만 장사치들이 얘기하는 대로 금방 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생괴를 먹어서 오는 세균감염이나 복통증 피가 엉기어 생길 수 있는 질식이 우려된다고 본다.

윤을 상 (한의학 박사)

한마음의 등불 ②

상원이를 첫번째 환자로 이틀을 울리고 팔과 오색실을 가지고 와서 배개속에 넣고 불도 못먹는 아이 입에다 팔을 넣어 주었습니다. 상원이는 품이 괴로워도 하루에 한번은 법당에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절을 울리는 아이를 볼끄러미 보면서 "부처님께 뭐라고 기도드렸니?" 하고 물었더니 "엄마, 난 이렇게 그냥 죽을 수 없어. 부처님께 살려 달라고 했어."

"그래, 상원아 난 꼭 이겨낼거야." 우리 모자는 서로 껴안고 한없이 또 울었습니다. 병원에 있다보면 봉사자들이 많이 옵니다. 병원법당에서도 자원봉사자 불자들이 환자들에게 불교도사와 교양서적을 도서관을 이용해서 빌려다 줘서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스님과 함께 전·외국환자에게 합장주를 보시할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다보삼보살님! 유방암이었다가 완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픈환자의 심정을 헤아리셨나 봅니다. 저희 병실에 들어 오시면 활짝 웃으시며 상원이 손 잡고 편안하게 얘기 하십니다.

"이런 병은 감기와 같이, 누구에게나 올수 있단다. 우리도 지금의 병고를 잘 극복하면 정상인보다 더 오래 70-80세까지도 살 수 있으니 '가 힘내' 손을 흔들며 나가는 다보삼보살님을 바라보는 상원이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도착하면 법당에서 기도 한 후 병실에 올라가서 밤새 무엇을 보았나, 아무일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휴게실에 나와서 기독교 독서대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 불교도서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병실에 입원한 백발령 아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차도 마시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병이 더 깊어지면서 상원이는 먹지를 못했습니다. 지장기도를 하면서 나 스스로

채득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의 아픈 곳이 꼭부부이니 늘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다른 환자들을 챙겨 주었습니다. 5층 병동은 정부가 전담이나 의경들이라 별 큰병은 아니어서 식욕이 무척 왕성했습니다. 가벼운 음식을 달게 먹는 것을 보면 제 마음도 즐거웠습니다.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서 본인에게 병명을 알려줄 때면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렸습니다. 부처님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상원이 치료를 받으신 주치의와선생님, 간호사선생님 그 분들

의사·간호사선생님 손이 약사어래불 손이 되어 아들을 낳게해 주세요

"아들 먹이지 못해도 다른 환자들을 챙기고 청소도 기독교 독서대부터..."

손이 약사어래불 손이 되어 제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구멍 뚫린 곳마다 몸의 나쁜 기운이 모두 빠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온 전신에 땀에 흠뻑 젖도록 합장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상원이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오면 귀에서 코에서 목에서 짙은 색깔의 이물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힘이 생겼습니다. 온 불교도서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병실에 입원한 백발령 아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차도 마시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병이 더 깊어지면서 상원이는 먹지를 못했습니다. 지장기도를 하면서 나 스스로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그림·이준석

◆ Bhagavat : The man who given to women, to strong drink, and to dice, wastes whatever he has gained,—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05)

"여자, 술, 도박에 빠져 버는 족족 탕진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 Del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eighth loser ; tell us the ninth, O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06)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덟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아홉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 Bhagavat : He who, not satisfied with his own wife, is seen with harlots and the wives of others,—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07)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나 남의 아내와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 Del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ninth loser ; tell us the tenth, O

영어로 배우는 경전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08)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홉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열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 Bhagavat : The man who past his youth, brings home a woman with breasts like the timbaru fruit, and for jealousy of her cannot sleep,—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09)

"한창때를 지난 남자가 티만 열매처럼 볼록한 젖가슴을 가진 젊은 여인을 집안으로 데려오고, 그녀를 질투하는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die (n) 도박, 주사위
*trick 매춘부
*married (n) 만족한, 흥취된
*polar (n) 남부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해외불교문화 다이제스트



그림·심민섭

시타르타 ⑧

해르만 해세 작

시타르타는 이미 정든 고을을 떠나 어느 숲 속을 방황하고있었다. 숲을 관류하는 큰 강가에 이르러 시타르타는 오래된 자신을 건네준 뱀사공을 생각하고 그를 찾았다. 사공은 그 강나루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 역시 몹시 늙어 있었다. 그는 시타르타를 알아 보았다. 사공은

시타르타를 안내해 방과 물을 권했다. 뱀사공의 이름은 바스데바였다. 시타르타는 바스데바의오두막에 머물며 사공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부처의 제자인 승려들이 물러와 강을 건너 주기를 간청했다. 그들은 세존에서 귀족하여 머지않아 현실으로서의 숨을 거두고 해탈의 경지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타르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현인이며 스승인 그분에게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이 가까워진 부처를 찾아가고 그 소리를 들은 카탈라도 간단한 복장으로 어린 아들 시타르타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바스데바의 나루터 근처에 왔을때 아이는 흠뻑 젖어 가지고 나왔다. 카탈라도 괴로웠으므로 길가에 쪼

그리고 앉아 쉬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아들은 어머니의 옷자락 밑에서 달아나는 뱀을 보았다. 바스데바가 아들의 비명을 들었다. 시타르타 부자는 이렇게 슬픈 만남으로 상봉했지만 함께 사는 동안 아들은 매우 버릇

이 없었다. 가이아 아들은 배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시타르타는 그 배가 강 건너 언덕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 했다. 그는 도망 친 것이다. 아들로인한 상체는 갔다. 시타르타는 그리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강을 건넜다. 고을에서 아들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강물은

희극 기이하고 어리석은 희극 되를 이어 속명적인 운회와 아니고 무엇이냐. 강물은 웃었다. 시타르타는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 자신과 육신들과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불은 황급히 울러 갔다. 시타르타가 그 강물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을때

고민다는 다시 순례의 길에 올랐고 강가에 이르러 늙은 뱀사공에게 강을 건너 주기를 간청 했으나 그 늙은 뱀사공 시타르타를 알아 보지 못했다.

"자네는 하나의 가르침을 갖고 있다. 하나의 믿음과 지혜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 자네의 생활과 영성에 도움을 받는다" "참네가 오랫동안 나의 스승이 된 적도 있고 상원이 노름꾼이 순례중인 한 불제자가 스승이 되기도 하였네. 하지만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은 여기 이 강물아네. 그리고 나의 선의자인 바스데바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웠네. 그는 단순한 사람으로 사색가는 아니었네. 부처 고타마처럼 필연적인 것을 알고 있었네. 그는 원경자이며 성인이었네." (끝)

고통과 웃음을 들로 보지 않을 때 완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조용히 흐르는 강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고 싶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을 되새겨 보았다. 아버지도 자기가 지금 아들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당한게 아니었던가. 그것은 하나의

고통의 소리와 웃음의 소리를 구분하여 듣지 않게 되었을때 그의 영혼이 어느 한 소리에 얽매지 않고 자유로이 어느 한 소리에 몰입할 수 있었을 때 완성이 소리로 들을 수 있었을때 바스데바는 떠나갔다.

생활속의 불교 ⑧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야 한다



불법을 자기의 살림 수준으로 끌어 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 기준으로 해석하고 단정지어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자가 아니라 가르침을 왜곡 전파하는 해로운 자요, 의도일 뿐이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보잘것 없는 알음알이에 기대어 불법을 왜곡하는 이가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는 것은 해탈에 이르고자 함이다. 빛나간 자의 식과 열반 사이의 드넓은 간격을 좁혀 마침내 괴안에 이르고자 함이다. 그러나 자신이 건너편 저 언덕에 이르러 하지 않고 언덕을 제 쪽으로 끌어 당기고 자 위치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모하게도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는가 하면 정진하기를 포기하고 마치 괴안에 도달한 양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기만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하지만 괴안은 항상 거기에 그렇게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의 희망, 거짓, 왜곡, 강요 따위와는 무관하게 거기에 있을 뿐이다.

스스로 불자라면서 믿음의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일이 잘 되게 해 달라, 돈을 벌게 해 달라, 건강하게 해 달라, 기도하고 빌고 호소한다. 헌금하고 시주하고 공양물 바치며 갈구·애원한다. 한쪽에선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고 부추기고 강요한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아무리 많고 거창하다 해도 불행과는 무관하다. 비록 불법의 이름으로 했다 해도 그런 공염불이다.

설사 부처님이 계시어서 그 소리를 듣고 그 행위를 본다고 하자. 도대체 부처님을 위해 무엇을 바쳤고 무슨 회생을 했던 말인가. 본래 '내것'이란 없다고 가르치신 부처님이시니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친 게 없으며 아무것도 회

생한 것은 없이 다만 시끄럽게 애걸했 을 뿐이다. 나를 한번 돌아보아 달라고 배를 썼을 뿐이다. 제 아무리 손짓하고 목청을 높여 부른다 해도 건너편 언덕이 내게 다가오지 않듯이 부처님은 내 곁에 오지 않고 거기 그렇게 계시는 뿐이다.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한다. 건너 가야 한다. 보시·지계·인욕·정진의 배를 타고 선정·반야의 다리를 건너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자의식의 죽음이라는 통행증을 구입해야 한다. 면죄부처럼 돈 주고 살 수 있는 표가 아니라, 오로지 내 몸 살림에 걸착하는 자의식, 내 의식 살림에 얽매인 자의식의 죽음이라는 표를 사야만 한다. 괴안으로 가는 방법은 오직 그것뿐이다. 그밖에는 어떤 통행증도 무용지물이다.

자 의식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관념의 죽음이다. 관념의 죽음은 좀처럼 수습키 어려운 자아 부정의 치열한 작업을 요구한다. 아상·아만을

협찬: 한 나 리